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Childcar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김은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자녀 돌봄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의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공립시설 이용 희망과 실제 이용이 일치하는 비율은 0~2세 영아기와 3세~취학 전 유아기가 각각 16.7%, 36.5%로 조사되었다. 초등돌봄·방과후 서비스 이용 희망과 실제 이용이 일치하는 경우는 1~3학년 75.6%, 4~6학년 66.2%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공적 서비스(국공립시설, 초등돌봄·방과후 등) 이용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불일치 원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내 부모 돌봄에 따른 양육 부담과 초등학교 자녀 양육 공백에 대한 불만이 조사됨에 따라 가정 내 양육 부담 해소 방안 마련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양육 지원 서비스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제1~3차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양립 어려움이 대두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방안이 모색되었다. 전반적으로 양육 지원 정책은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확대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영유아 중심의 돌봄 지원 정책에서 점차 초등

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4년 초등돌봄교실이 전면 확대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에 대한 돌봄 지원은 2004년 ‘방과후교실’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0년 이후 해당 사업이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이삼식 외, 2016). 2016년 기준으로 참여 학부모의 95.7%가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등 매우 호응도가 높은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교육부, 2017). 이처럼 무상보육과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아동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의 돌봄 지원 구조하에서도 상당수 가구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은 국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의 돌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중 자녀 돌봄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5~49세 유배우 여성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와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을 기준으로 각각

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로 나누어 시기별로 희망하는 돌봄 유형과 실제로 이용하는 돌봄 유형을 살펴보고 이들의 일치도 및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수급의 불일치와 그에 따른 정책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돌봄

가.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가 있는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주간 시간 동안 희망하는 자녀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분석은 아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1>은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희망하는 주간 돌봄 유형을 조사한 결과로, 0세 아동의 경우 66.9%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1세 아동은 부모 돌봄 희망 비율이

표 1.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 희망하는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구분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43.9	28.3	19.6	4.4	3.8	100.0	(5,399)
0세	15.3	5.7	66.9	8.8	3.3	100.0	(667)
1세	29.9	23.3	34.9	7.7	4.2	100.0	(716)
2세	43.3	33.4	15.7	4.5	3.1	100.0	(815)
3세	52.2	31.5	9.3	3.5	3.6	100.0	(895)
4세	53.0	32.7	7.7	2.3	4.3	100.0	(868)
5세	54.5	33.2	5.7	2.4	4.3	100.0	(865)
6세 이상	54.5	33.2	5.7	2.4	4.3	100.0	(57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10>.

34.9%로 낮아지는 반면 국공립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속화되어 4세 이상 유아의 경우 85%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의 분석에서 국공립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이외에 직장어린이집¹⁾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포함한다. 친인척 돌봄에는 조부모를 포함한 기타 친인척이 해당되며, 기타에는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사설 학원,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방문 교육,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등이 포함된다.

〈표 2〉는 주간 돌봄을 위해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을 조사한 결과이다. 0세 아동의 경우 88.5%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앞서 분석된 부모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다소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국공립시설 이용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설 이용 비율은 2~4세의 경우 75% 내외이며 5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 해당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시설 이용률은 95% 내외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앞서 분석한 희망 돌봄 유형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및 만족도

앞서 분석한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이용하는 돌봄 유형을 0~2세와 3~5세로 구분하여 살펴보

표 2.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 실제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명)

구분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16.3	59.5	20.1	1.9	2.2	100.0	(5,403)
0세	0.3	4.9	88.5	4.9	1.3	100.0	(667)
1세	6.4	36.5	48.1	6.8	2.1	100.0	(717)
2세	11.5	72.2	12.9	2.0	1.5	100.0	(816)
3세	17.6	77.0	3.2	0.6	1.7	100.0	(894)
4세	21.0	75.5	0.9	0.1	2.4	100.0	(870)
5세	26.2	69.6	0.5	0.0	3.7	100.0	(866)
6세 이상	29.7	66.8	0.5	0.0	3.0	100.0	(57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13〉.

1) 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고자 한다. <표 3>에 따르면, 0~2세 영아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을 희망하면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16.7%에 불과하며 49.6%는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30.0%는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82.7%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으

며 14.1%는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공립시설 수요에 대한 공급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81.9%가 실제로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인척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4.7%만 실제로 친인척

표 3. 0~2세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단위: %)

구분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계	(명)
	국공립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전체	6.4	40.2	47.3	4.5	1.6	(2,198)	100.0
국공립	16.7	49.6	30.0	2.8	0.9	(670)	100.0
민간시설	1.3	82.7	14.1	1.5	0.4	(475)	100.0
부모	1.7	11.4	81.9	3.6	1.3	(825)	100.0
친인척	4.0	28.0	40.7	24.7	2.7	(150)	100.0
기타	3.8	28.2	44.9	6.4	16.7	(78)	100.0

주: 1)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16>.

표 4. 3세~취학 전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단위: %)

구분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계	(명)
	국공립	민간시설	부모	친인척	기타		
전체	23.0	72.8	1.4	0.2	2.7	100.0	(3,202)
국공립	36.5	62.0	0.6	0.1	0.8	100.0	(1,701)
민간시설	2.6	95.3	0.8	0.0	1.4	100.0	(1,053)
부모	22.2	63.2	9.8	0.9	3.8	100.0	(234)
친인척	20.2	72.6	2.4	1.2	3.6	100.0	(84)
기타	15.4	49.2	0.8	0.0	34.6	100.0	(130)

주: 1)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17>.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취학 전 유아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을 희망하면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36.5%로 0~2세 영아기보다는 실제 이용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4). 그럼에도 62.0%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유아의 95.3%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인척이나 부모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세 이상의 유아기에는 0~2세 영아기에 비해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이용 유형의 일치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공립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일치도가 낮은 상황으로 이해된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0~2세 영아기의 경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이며 3세~취학 전 유아의 경우 불만족 비율은 5.5%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 유형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이용하는 돌봄 유형이 선택 가능한 유형 중 자신이 수용 가능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불만족 비율에 다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0~2세 영아의 경우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6.4%,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60.8%이며 3세~취학 전 유아의 경우 각각 14.9%, 63.5%로 조사되었다.

표 5. 취학 전 아동의 실제 주간 돌봄 유형별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0~2세 영아기	16.4	60.8	16.6	5.6	0.6	100.0	(2,199)
국공립시설	18.3	68.9	9.3	3.1	.4	100.0	(142)
민간시설	12.8	64.9	17.0	4.8	.5	100.0	(883)
실제 돌봄 유형							
부모 돌봄	17.0	58.6	17.0	6.9	.5	100.0	(1,040)
친인척 돌봄	32.4	41.7	19.8	4.6	1.6	100.0	(98)
기타	34.5	46.5	13.7	2.6	2.7	100.0	(36)
3세~취학 전	14.9	63.5	16.1	5.0	0.5	100.0	(3,202)
국공립시설	20.9	62.3	12.2	4.0	0.6	100.0	(737)
민간시설	12.9	64.2	17.5	5.0	0.3	100.0	(2,332)
실제 돌봄 유형							
부모 돌봄	10.7	56.5	17.3	10.4	5.0	100.0	(44)
친인척 돌봄	0.0	72.2	27.8	0.0	0.0	100.0	(5)
기타	20.8	56.0	10.7	8.9	3.6	100.0	(85)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18>, <표 7-19> 재구성.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국공립시설 돌봄에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0~2세 영아기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부모 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불만족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만족도 문항에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추가로 조사하였다(표 6). 0~2세 영아기의 경우 본인 장시간 돌봄이 주된 불만족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부모 돌봄 사례자인 경우로 나타났다. 3세~취학 전

자녀의 경우 또한 본인 장시간 돌봄이 주된 불만족 사유로 조사되었다. 다만, 0~2세 영아기와 달리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 장시간 돌봄에 따른 불만족이 다수 조사되었다. 영유아기 모두 양육 시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밖에 유아기에는 유아기에 비해 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시설 이용, 개별 돌봄 이용)은 26.5%로 현재 돌봄 유형에 대한 주된 불만족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희망 서비스 부재 때문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8%로 영아기 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3세~취학 전 자

표 6. 취학 전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시설 이용 비용 부담	개별 돌봄 비용 부담	희망 서비스 부재	서비스 불만	본인 장시간 돌봄	짧은 시설 돌봄 시간	기타	계
0~2세 영아기	5 (3.6)	13 (9.5)	17 (12.4)	14 (10.2)	79 (57.7)	7 (5.1)	2 (1.5)	137 (100.0)
국공립시설	-	0	2	1	-	2	1	6
민간시설	4	4	8	10	16	4	1	47
실제 돌봄 유형	부모 돌봄	1	8	5	1	61	-	76
친인척 돌봄	-	-	2	2	1	1	-	6
기타	-	1	-	-	1	-	-	2
3세~취학 전	28 (15.8)	19 (10.7)	28 (15.8)	20 (11.3)	40 (22.6)	39 (22.0)	3 (1.7)	177 (100.0)
국공립시설	1	3	7	1	6	15	1	34
민간시설	25	15	17	18	25	23	2	125
실제 돌봄 유형	부모 돌봄	-	1	-	6	-	-	7
친인척 돌봄	-	-	-	-	-	-	-	-
기타	2	1	3	1	3	1	-	1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20>, <표 7-21> 재구성.

녀의 경우 짧은 시설 이용 시간 등이 불만족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민간시설 이용자의 경우 시설 이용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족 사례도 다수 조사되었다. 다만, 불만족 사례가 적어 이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3. 초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돌봄

가.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표 7〉은 초등학생 아동에 대해 희망하는 주간 돌봄 유형을 조사한 결과로, 1학년의 경우 48.6%가 초등돌봄·방과 후 이용을 희망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당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설 교육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1학년 30.3%에서 3학년 41.7%, 6학년 54.7%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학년에 비해 4~6학년의 경우 공공 인프라 이용 희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글에서 공공 인프라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이 해당되며 사설 교육기관은 사설 학원, 공부방, 방문 교육 및 과외 등이 해당된다. 기타에는 어린이집 방과후보육,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아이의 형제 자매, 아이 혼자 등이 포함된다.

실제 돌봄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평균적으로 초등돌봄·방과후를 이용하는 비율(41.8%)보다 사설 교육기관 이용 비율(52.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초등돌봄·방과후 이용 비율이 사설 교육기관 이용 비율보다 높았으나 3학년부터는 사설 교육기관 이용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초등돌봄·방과후 이용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등 자녀에 대한 돌봄은 초등돌봄·방과후와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7.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년별 희망하는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구분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 교육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37.5	7.1	41.8	10.6	2.3	0.7	100.0	(5,021)
1학년	48.6	5.7	30.3	11.5	3.0	0.9	100.0	(880)
2학년	45.3	5.9	34.1	11.3	2.5	1.0	100.0	(886)
3학년	37.3	7.0	41.7	12.2	1.4	0.4	100.0	(810)
4학년	35.1	8.0	44.8	9.2	2.2	0.7	100.0	(852)
5학년	31.4	7.4	47.4	9.9	3.0	0.9	100.0	(822)
6학년	25.4	8.6	54.7	9.5	1.6	0.3	100.0	(77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22〉.

표 8.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년별 주간 돌봄 유형

(단위: %)

구분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 교육기 관	부모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41.8	2.2	52.3	2.7	0.3	0.7	100.0	(5,021)
1학년	55.5	2.0	38.5	3.4	0.2	0.3	100.0	(880)
2학년	53.1	1.7	42.0	2.5	0.1	0.6	100.0	(885)
3학년	42.2	2.8	52.5	1.8	0.2	0.4	100.0	(811)
4학년	38.6	2.2	55.5	2.5	0.6	0.6	100.0	(852)
5학년	32.3	2.4	61.1	2.9	0.2	1.0	100.0	(823)
6학년	26.4	2.2	66.8	3.4	0.1	1.2	100.0	(77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25>.

나.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및 만족도

앞서 분석한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을 비교한 결과, 1~3학년의 경우 초등돌봄·방과

후 이용을 희망하면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75.6%로 돌봄 유형 중 일치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 9). 뒤를 이어 사설 교육기관 이
용 희망에 따른 일치도는 71%로 조사되었다. 초

표 9.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에 대한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단위: %)

구분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계	(명)
	초등돌봄 ·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 교육 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전체	50.5	2.1	44.2	2.6	0.2	0.4	100.0	(2,574)
초등돌봄·방과후	75.6	0.6	21.6	1.7	0.1	0.4	100.0	(1,130)
공공인프라	41.5	20.8	35.2	1.9	-	0.6	100.0	(159)
희망하는 곳 (사람)	사설 교육기관	24.8	1.3	71.0	2.2	0.2	100.0	(907)
부모	41.7	1.0	49.3	7.3	0.7	-	100.0	(300)
친인척	39.0	-	61.0	-	-	-	100.0	(59)
기타	31.6	-	47.4	15.8	-	5.3	100.0	(19)

주: 1)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28>.

등돌봄·방과후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21.6%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24.8%로 조사되었다. 공공 인프라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으나 그마저도 희망에 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인프라 이용 희망자의 20.8%만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는 초등돌봄·방과후(41.5%), 사설 교육기관(35.2%)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6학년의 경우 초등돌봄·방과후 이용을 희망하면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66.2%로 1~3학년보다 일치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반면에 사설 교육기관 이용에 대한 일치도는 81.4%로 돌봄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돌봄·방과후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29.6%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15.2%로 조사되었다. 4~6학년이 1~3학년보다 초등돌봄·방과후 이용에 대한 일치도가 낮은 것은 고학년 대상의 초등돌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간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8.3%로 미취학 아동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학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9.9%,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63.3%이고, 4~6학년은 각각 7.8%, 64.4%로 조사되었다.

현재 돌봄 유형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나 이에 대

표 10.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에 대한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단위: %)

구분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계	(명)
	초등돌봄·방과후	공공 인프라	사설 교육기관	부모	친인척	기타		
전체	32.6	2.3	61.0	2.9	0.3	0.9	100.0	(2,440)
초등돌봄·방과후	66.2	0.5	29.6	2.3	0.1	1.3	100.0	(751)
공공인프라	24.2	19.1	52.6	3.1	0.5	0.5	100.0	(194)
희망하는 곳(사람)	사설 교육기관	15.2	0.4	81.4	2.3	0.1	100.0	(1,194)
부모	22.5	3.5	64.9	8.2	0.4	0.4	100.0	(231)
친인척	27.3	1.8	63.6	-	7.3	-	100.0	(55)
기타	20.0	-	53.3	13.3	-	13.3	100.0	(15)

주: 1)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29>.

표 11. 초등학생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유형별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1~3학년		9.9	63.3	18.5	7.5	0.8	100.0	(2,575)
실제 돌봄 유형	초등돌봄·방과후	10.7	63.6	17.6	7.2	.8	100.0	(1,300)
	공공 인프라	26.1	60.7	9.5	3.6	0.0	100.0	(55)
	사설 교육기관	8.5	63.6	19.5	7.6	.7	100.0	(1,138)
	부모 돌봄	2.3	66.6	19.6	8.9	2.5	100.0	(67)
	친인척 돌봄	57.5	18.9	23.6	0.0	0.0	100.0	(5)
	기타	0.0	9.7	37.8	40.4	12.1	100.0	(11)
4~6학년		7.8	64.4	19.4	7.7	0.6	100.0	(2,442)
실제 돌봄 유형	초등돌봄·방과후	8.2	64.5	20.0	6.8	.5	100.0	(798)
	공공 인프라	24.0	65.5	8.8	1.7	0.0	100.0	(56)
	사설 교육기관	6.9	65.6	19.4	7.5	.5	100.0	(1,489)
	부모 돌봄	9.8	49.0	23.5	16.7	.9	100.0	(71)
	친인척 돌봄	28.4	40.3	23.9	7.4	0.0	100.0	(8)
	기타	2.6	37.6	4.5	42.5	12.9	100.0	(22)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30>, <표 7-31> 재구성.

한 만족도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초등돌봄·방과후 돌봄에 대한 만족도 비율이 사설 교육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부모 돌봄에 대한 만족도 비율은 가장 낮고 불만족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만족도 문항에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1~3학년의 경우 비용 부담(39.1%)과 서비스 불만(32.6%)이 주된 불만족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봄 공백(17.7%)에 대한 불만 사례의 경우 대부분 초등돌봄·방과후를 이용하거나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은 사설 교육기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초등돌봄·방과후 이용 사례에서도 다수 발견되

고 있다. 4~6학년의 경우 불만족의 주된 원인은 1~3학년과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40.5%)과 서비스 불만(3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용 부담에 따른 불만족 비율은 1~3학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시기에는 영유아기와 달리 서비스 불만과 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영유아기 시기와 달리 초등학교 시기에는 단순 돌봄 이외에 교육적 욕구에 따라 방과후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서비스 불만과 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초등돌봄·방과후,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의 돌봄 공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12. 초등학교생 자녀의 주간 돌봄 유형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용 부담	돌봄 공백	희망 서비스 부재	서비스 불만	기타	계
1~3학년		84 (39.1)	38 (17.7)	22 (10.2)	70 (32.6)	1 (0.5)	215 (100.0)
실제 돌봄 유형	초등돌봄·방과후	36	26	9	34	0	105
	공공 인프라	1	0	0	1	0	2
	사설 교육기관	42	11	13	28	1	95
	부모 돌봄	2	-	-	6	-	8
	친인척 돌봄	-	1	-	1	-	-
	기타	3	1	-	1	-	5
4~6학년		83 (40.5)	36 (17.6)	19 (9.3)	66 (32.2)	1 (0.5)	205 (100.0)
실제 돌봄 유형	초등돌봄·방과후	20	12	5	22	0	59
	공공 인프라	1	0	0	0	0	1
	사설 교육기관	53	21	12	34	0	120
	부모 돌봄	5	0	1	6	0	12
	친인척 돌봄	0	0	0	1	0	1
	기타	4	3	1	3	1	12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32>, <표 7-33> 재구성.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자녀 돌봄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미취학 자녀의 돌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 중 실제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비율은 0~2세 영아기와 3세~취학 전 유아기 각각 16.7%, 36.5%로 조사되었다. 영아기의 경우 나머지 아동은 국공립시설 대신 민간시설을 이용하거나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에는 국공립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주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기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이 어려우면 민간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유아기와 달리 가정 돌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현상은 가정 돌봄에 따른 양육수당의 차이, 연령대에 따른 가정 양육에 대한 선호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된다. 일·가정양립 지원 효과를 위해서는 영아기에 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 형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의 주요 원인은 본인의 장시간 돌봄, 희망서비스 부재, 비용 부담 등으로 조사되었다. 0~2세 영아기의 경우 본인 장시간 돌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았으며 3세

취학 전 유아의 경우 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별활동 등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영아기에는 시설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유아기에는 시설 이용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실태 분석 결과, 초등돌봄·방과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1학년의 경우 48.6%이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학년의 경우 초등돌봄·방과후 서비스 희망과 실제 이용이 일치하는 비율이 66.2%로 1~3학년의 75.6%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방과후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 유형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비용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주요 이유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단순 돌봄 이외에 교육적 욕구에 따라 방과후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서비스 불만과 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초등돌봄·방과후,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의 돌봄 공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돌봄·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설 교육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공적 서비스(국공립시설, 초등돌봄·방과후 등) 이용 희망에 대한 실제 이용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내 부모 돌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불일치 원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양육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공적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가정 내 양육 부담 해소 방안 마련 등 수요자 욕구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17. 1. 11.).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발표. 보도자료.
- 이삼식, 황나미, 정경희, 박종서, 김은정, 이상림,.....홍승아.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모니터링 사업.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